참교추 부부 수련회 독서 발제

목사 신학자 Review

-제럴드 히스탠드, 토드 윌슨 著-

발제자 : 정종남 목사 신학자 (벧엘교회)

어느 날 수수하게 장식된 무덤 하나가 소녀의 관심을 사로 잡았다. 거기에는 죽은 자의 이름과 출생 및 사망 날짜, 그리고 '목사 신학자'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하나의 묘비에 두 단어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얼굴은 놀라움과 뭔가에 매료된 듯한 표정으로 뒤섞여 밝아져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무덤 하나에 두 사람이 묻혀 있네요." (p. 28)

서론 : 무엇이 문제인가? (1장)

현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문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질문이 이렇게 복잡한 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현대교회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교회가 당면한 몇 가지 문제에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좋은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는 현대 교회의 중심부에서부터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가 현대 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목사의 정체성 혼란'은 주의를 기울여 생각할 만한 주제가 분명하며, 우리는 저자의 지적을 쉽게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신학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목사들의 사역 자세와 내용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사실은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자는 목사의 정체성은 반드시 신학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와 신학자라는 두 단어의 경계를 인정합니다. 문제는 저자의 지적처럼 목사로서의 사역과 신학자로서의 사역을 구분하는 자체가 아니라, 그 구분을 위한 잘못된 기준에 있습니다.

> *우리의 문제가 현재 목사와 신학자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하지 못한 일 구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p. 28)*

이 건강하지 못한 구분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입니까?

> *학자들은 신학적 리더쉽을 다루고 목사들은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는 표준적인 일의 구분은 그야말로 불충분하다. (p. 30)*

저자는 현대 교회에 너무나 만연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의례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학의 파편화(이론과 실제의 결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은 이제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사용해왔던 용어도 아니고, 그러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웰스는 ***신학이 교회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났으며, 존중의 대상에서 부담스러운 짐짝***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교회의 목회자에게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경주 선수에게 엔진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학은 의자에 붙어 있는 다리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의자의 다리들이 닿는 마룻바닥이다.*** *(p. 38)*

신학자에게 신학이 꼭 필요한 것처럼 목사에게도 신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이며 또한 사역의 근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신학자인 것처럼, 목사 역시 신학자여야 합니다.***

본론 1 : 목사 신학자가 신학과 결별한 이유와 방식 (2-3장)

2장과 3장은 목사직에 대한 역사적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초대 교회와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수놓았던 목사-신학자들을 열거하며(2장), 이 책에서 주장하는 목회자상이 결코 개인의 주관적 이상이나 기호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합니다. 분명히 ***교회 역사의 대부분의 경우에 목회자들은 또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 *과거에 목사직이 왕성한 신학적 연구와 양립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자들을 생각해보기만 하면 된다. 이레나이우스, 아타나시우스, 바실리우스, 나사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레고리우스 대제, 안셀무스, 칼빈, 에드워즈, 웨슬리 등은 모두 신학적 리더십과 목회적 직업 사이의 역사적이며 고유한 관계를 증명한다. (p. 42)*

그렇다면 현대교회에서 목사-신학자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저자는 유럽과 북미에서 일어난 교회 역사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데, (3장) ***저는 유럽과 북미에서의 영적 혁명이 현대 교회에서 목사 신학자가 신학과 결별했던 이유와 그 방식에 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유럽에서의 커다란 분리 : 신학에 대한 지적 비평

계몽주의는 중세말기 유럽의 정치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격변을 가져왔으며, 교회 역시 이 도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철학자들의 궤멸적 공격은 성직 신학자들과 비성직 철학자들 사이에 문화적 전쟁을 촉발시켰는데, 이는 양측이 유럽의 지적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교회는 그 싸움에 졌다.*** *교회는 살아남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줄어들었다. 교회의 지적 온전함에 대한 대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지식인들이나 유럽 문화는 교회를 더 이상 보편적으로 서구 문화의 분명한 지적 중심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p. 80)*

물론, ***계몽주의자들은 신학자들에게 성경 연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계몽주의의***

명령은 신학의 중단이 아니라, 신학의 변화였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다른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학에서도 이성을 판단의 기준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몽주의의 허울로 보입니다. 저로서는 실제로 계몽주의가 공격했던 것은 신학의 윤리적 성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계몽주의는 규범적 권위를 제거한 신학을 창출하기 위해, 이성이라는 기준 하에 신학을 종속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에 그의 눈을 빼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의 장수를 오히려 재주를 부리는 자로 삼은 것처럼,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삶의 빛과 목적을 설정해주던 신학을 이성의 관찰의 대상과 지적 쾌락을 위해 기능하도록 했습니다.

> *객관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대 관념이 탄생했고, 그것들이 진정한 학문으로 가는 방법론적 경로로 칭송되었다. (p. 82) ... 대학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 성경과 신학의 연구는 결코 예전과 똑같지 않았다.* ***19세기에 들어서 믿음의 지적 신뢰성은 서구에서 강력하고 폭넓게 비난 받았고, 성경과 신학 연구는 급진적으로 다른 형태를 갖고 대학에서 살아 남았다.*** *(p. 83)*

신학자들은 학문의 객관성만을 인정하는 시대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고, 점차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학자적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대신 신학은 과학의 권세 앞에 엎드려 그들의 세상의 한 켠에 조그만 자리를 얻고자 아량을 구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신학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신학을 버리기 전에 신학이 먼저 -그 생존을 위하여- 교회를 버린 것입니다.

윤리적 의미를 잃어버린 신학이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간교하게도 계몽주의는 교회가 신학을 붙들어야 할 그 이유를 공격한 것입니다.

② 북미에서의 커다란 분리 : 신학에 대한 문화적 비평

북미의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학교나 전문기관으로 떠난 이유는 유럽에 비해 약간 복잡합니다. 저자는 북미에서의 신학적 분리의 원인을 도시화, 사회 종교적 평등주의, 마지막으로 복음주의 신학교들의 설립에서 찾고 있습니다.

a. 도시화 – 전문가의 시대 : 산업혁명 이후로 북미 사회는 급격하게 도시화됩니다. 사회는 전문화되었고, 복잡해지면서 동시에 분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신학자들은 '단순한 삶의 영역'에서 발휘였던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목사'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목사'도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찾아야 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는 '설계사'와 '건축 기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b. 평등주의 – 욕구의 시대 : 누구나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자기 영역을 벗어나면 '권위'를 잃는다는 것은 뜻합니다. 발 빠른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들은 이러한 변화를 일찌감치 감지하고 '권위'를 포기한 대가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졌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사회의 권위는 오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c. 신학교 – 목회지에 부임할 수 있는 자격 취득 기관 : 유럽에서 이성에 굴복했던 신학은 북미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효율성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어떤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역시 신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이 과연 우리의 만족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했든 보수주의 신학을 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는 얼마나 더 재미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본론 2. 교회와 신학이 분리된 결과 (4-5장)

4장과 5장은 현대교회에 대한 저자의 진단입니다. 신학이 계몽주의와 현대화로 인하여 파편화되고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자에 의하면, 교회 안에는 이제 신학이 실종되었고, 신학은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학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4장)** 대다수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신학이 실종되었다는 저자의 진단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신학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연고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4장에서 신학,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탐구와 지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 신학이 실종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덕(virtue)의 상실입니다.***

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리와 조화를 이룰 때, 즉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일 때 우리의 애정과 의지는 올바로 정돈된다. (p. 99) … 올바른 삶을 사는 열쇠는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는 능력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다. (p. 100)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신학의 실제성입니다. 신학은 원래부터 또한 본질적으로 실제적이어야 하며, 실제적입니다. 신학을 상실한 교회의 타락이 단순히 성도들이 교리문답을 외우지 못하거나 역사적 신조들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는데서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주의의 윤리적 빈혈은 잠재해 있는 신학적 빈혈에 원인이 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올바로 처방된 치료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내린 진단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p. 103)

우리는 인간론, 인식론, 우주론, 구원론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였다. 환원주의적이고 우호적인 결혼에 대한 견해는 이혼율을 증가시켰고, 성을 오락으로 보는 것이 데카르트의 마음과 몸을 이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혼합되어 결혼에 대한 기독교의 정의를 문화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었고, 거대담론에 대한 포스트모던의 거부는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과 충분성에 대한 믿음을 위태롭게 했으며, 영지주의의 반물질주의는 탐욕이나 금욕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우주론에 침투에 들어왔다 이 모든 것들은 명백히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주의자들이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p. 104)

신학이 교회와 결별함으로 오는 문제는 '신학' 자체에서도 나타납니다. (5장) 교회는 분명히 신학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디로 신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도의 지적 토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계몽주의 이후 대학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교회에 주는 권면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놓는 침과 같이 고통은 있지만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 ***이 문화에서는 명백한 종교적 관점 혹은 적어도 명백한 기독교적 관점은 점차 비과학적이고 비전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p. 133)*

> *이제는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지를 알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엇을 믿었는지를 알기 위해 그를 공부해야만 한다. (p. 137)*

본론 3. 회복의 길 (6-8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장 - 8장은 현대 교회를 위한 저자의 처방**입니다. ***현대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바른 신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중심부에 서야 하는 이는 교수-신학자가 아니라, 바로 목사-신학자입니다.*** 신학의 의미와 가치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 이 결론부에서 목사 신학자를 3가지 방식으로 분류 (**6장**) 하는데, 이것은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1]

> *지역적 신학자는 자신의 지역 회중의 평신도들을 위해 신학을 구성하는 목사 신학자다. 대중적 신학자는 자신의 회중을 넘어 더 광범위한 평신도들에게 신학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목사 신학자다. 그리고 교회적 신학자는 다른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을 위해 신학을 구성하는 목사 신학자다. (p. 148)*

[1] 목사-신학자라는 개념 자체가 새로운데 지역적 목사 신학자, 대중적 목사 신학자, 교회적 목사 신학자라는 개념은 당연히 처음 듣는 사람으로서는 그 의미를 알기 힘들 것입니다.

차후에 분명해지겠지만, 지역적 신학자와 대중적 신학자는 이미 현대 복음주의 권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교회적 신학자는 잃어버린 패러다임이다. 이 모델을 되살리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이자 이 장의 초점이다. (p. 148)

결국 ***저자는 '교회적 신학자로서의 목사 신학자'의 회복을 현대 교회의 소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적 신학자는 신학적으로 영리한 회중 리더 이상이다. 교회적 신학자는 그 호칭의 의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신학적 리더십을 제공하는 신학자다. 교회적 신학자는 **다른 신학자들과 학자들에게** 신학을 글로 써서 출판한다. 이 때 그들을 역사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자료를 이용하고, 교회 안팎에서 교회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현대의 대화 상대들의 대화 내용을 이해한다. (p. 158)*

마지막으로 7장과 8장에서는 교회적 신학자의 특징(7장)과 교회적 신학자로 세워지기 위한 일종의 전략(8장)이 각각 소개됩니다.

교회적 신학자의 특징

① 교회적 신학자는 교회의 사역 안에 위치하여 신학한다.

② 교회적 신학자는 교회의 질문들을 특히 중요시 하며, 신학적 탐구에 대한 목회적 목적을 명확하게 나타낸다.

③ 교회적 신학자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신학을 명료화한다.

④ 교회적 신학자는 설교하는 목소리로 신학을 연구하며, 구체화한다.

⑤ 교회적 신학자는 교회를 위해 제공되었던 유적을 겸손히 배우는 학생이다.

⑥ 교회적 신학자는 신학의 각 분야를 통합적으로 구성한다.

⑦ 교회적 신학자는 학문적 신학자의 전문적이고 세밀한 연구로부터 지적 종합의 자료를 제공받으며, 적용의 한계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⑧ 교회적 신학자는 신학을 통해 삶의 중심을 성찰한다.

교회적 신학자로 세워지기

① 학위를 취득하라!

② 신학적 동료를 교회에 채용하라!

③ 신학적 동료를 사귀라!

④ 신학 연구 시간 확보하라!

⑤ 교회적 신학책들과 더불어 일반 고전을 읽으라!

⑥ 서재 만들라!

⑦ 연구와 글씨를 위한 휴가 활용하라!

⑧ 목사-신학자 인턴 채용하라!

⑨ 목사-신학자로서의 목회 방향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들의 마음에 이해를 구하라!

⑩ 신학 지식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라!

결론 – 목사 신학자의 소망과 용기 (9장)

> *모든 교파에는 학문적인 신학자만큼 신학적 학문성과 비범한 지적 능력을 겸비한 목사들과 사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추구할 만한 시간과 상황과 격려가 부족할 뿐이다. ... 교회 갱신은 갱신이 일어나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바로 그들의 출현에 의존한다.*
>
> *–윌리스 말스톤-*

흔히 신학이라고 하면 온갖 고서로 둘러 쌓여 있는 밀폐되고 고리타분한 서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학이 참으로 필요한 자리는 온갖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는 성도들과 부대끼며, 매일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바로 우리의 목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신학자들이어야 합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는 신학의 영광이 꽃피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가장 많이 도전 받는 자리 역시 우리의 목회지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신학이 무슨 소용이냐는 조롱과 비웃음, 당신이 목사지 신학교 교수냐는 반대는 항상 목사 신학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 사역자는 신학의 최선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 신학자는 위대한 신학의 영광과 그 신학의 고난을 항상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목사 신학자가 아니라면 목사 사장 혹은 목사 상담가 혹은 목사 봉사자, 심지어 목사 뚜쟁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신학자가 다 목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모두 신학자여야 합니다.** 그가 지역적 신학자이든, 대중적 신학자이든, 혹은 교회적 신학자이든 여하튼 목사는 신학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대는 무엇보다 신학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서서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 토의주제

1. 목사와 교수는 모두 신학이라는 같은 근거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분된 점이 있습니다. 신학을 대함에 있어서, 목사-신학자와 교수-신학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2. 저자는 신학이 비단 목회 사역 전문가들에게만 필요한 직업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임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 대해서 '성도-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현대 한국 신학교의 교과 과정 역시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와 더 나은 신학교육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4. 8장에서 저자는 교회적 신학자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전략들

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5. 20세기 이후 교회적 신학자로 손꼽을 수 있는 목사 신학자가 있다면?

6. 저자는 교회적 신학자에 대한 설명을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목사-신학자는 지역적 신학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역적 목사 신학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